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나주시,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착수

기반시설 조성, 빈집정비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올 6곳 마을 선정...2029년까지 총 24곳 조성 목표

나주시가 귀농·귀촌한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원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마을 환경 정비에 착수한다.

나주시는 민선 8기 공약인 농촌 거주자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올해 마을 6곳을 선정해 '귀농·귀촌 선도마을'로 조성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의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귀농·귀촌인 유입, 정착을 돕고 인구감소,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에 활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민선 8기 역점 농정으로 발굴했다.

선도마을에선 귀농·귀촌인, 원주민의 생활 편의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마을 기초기반시설 조성, 빈집정비, 경관개선, 주

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정비된 빈집은 농촌 일손돕기 참여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귀농·귀촌 체험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마을만들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마을단위 사업을 하나로 묶어 예산 중복투자를 막고 정책 실효성을 높였다.

또 잦은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들의 크고 작은 생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읍·면 마을 대상 자율공모를 통해 올해 마을 6곳을 선정했다.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곳씩 총 24곳 마을을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은 전체 기구의 10%이상을 귀농·

귀촌 세대로 확보할 수 있는 마을이다.

특히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수용 태세를 중점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사업 첫해 선정된 마을은 산포면 송림·산제, 문평면 서원(동원2리), 남평읍 우진(우산 3리), 동강면 복용(유정3리), 공산면 송정(가송1리) 마을이다.

해당 마을엔 2026년까지 3년간 마을별 최대 20여명의 사업비가 각각 지원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귀농·귀촌 선도마을은 잠재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해 귀농·귀촌인 유입을 촉진하는 민선 8기 핵심 농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쾌적한 마을 경관 조성은 물론 귀농·귀촌 이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되살아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귀농·귀촌 선도마을 조성 외에도 올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8곳),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8곳)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연 금리 1.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신축 비용을 올 상반기 20명에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군, 2024년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 등 연간 총 465대 지원 예정



담양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 및 수소자동차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인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 대상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자동차, 어린이교통용LPG 차량 등이며, 지난해(196대)의 2배 이상을 확보

해 연간 465대를 지원한다.

차종별 세부 지원 물량은 전기승용차 222대, 전기화물차 193대, 전기이륜차 38대, 수소자동차 10대, 어린이교통용 LPG차량 2대다.

관심도가 높은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3월 4일부터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차량별로 ▶전기승용차 최대 1천440만 원(일반 중·대형 기준) ▶전기화물차 최대 1천774만 원(일반 소형화물 기준) ▶수소승용차 3천45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차종별 보조금과 지원 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궁해차 통합누리집 및 담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대기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친환경차량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취업 준비 구직녀에 경력이음 바우처 지원

3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접수

화순군은 지난 2월29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력이음 바우처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여성에게 도서 구매, 면접 준비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라남도예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취업 지원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구직 등록한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경력 단절 여성이다.

고용노동부 구직촉진 수당, 여성 농어민 행복바우처 등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와 실업급여 등을 받은 여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3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으로 선정된 후 농협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바우처 지원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여성들이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 능력개발과 취·창업 준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장성군, 상습 침수지역 손본다... 국비 48억 확보

장성읍 장안리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

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됐다.

선정된 곳은 장성읍 장안지구로, 여름마다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황룡강과 개천의 합류 구간이다 보니 장마철에 수위가 상승하면 인근 농경지와 주택이 침수

피해를 겪었다.

장성군은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을 각각 1개씩 설치하고 배수로를 2.07km 확장하는 '배수개선사업'을 발굴했다. 이어서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를 수 차례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을 집중 건의했다. 그 결과,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되며 국비 48억 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사를 위탁받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올해부터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과정을 진행하며, 2026년 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역 국비사업인 '배수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해 장안리 일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장성=김수권기자

내일부터 건강 프로그램 본격 운영

곡성군은 군민의 건강한 생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석곡권과 옥과권에 권역별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고, 2024년 3월 5일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

곡성읍권역 건강증진센터는 이미 지난해 3월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에 석곡권과 옥과권에서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곡성군민 대다수가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석곡권역 센터는 석곡 종합회관의 다목적 대강당을, 옥과권역 센터는 사포골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을 활용하여 다양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옥과권 사포골문화센터 운영위원회와 석곡권 종합회관 운영위원회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센터 개소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곡성출장소, 체육회, 곡성체육인증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석곡권역에서는 실버 필라테스와 노래교실을, 옥과권역에서는 실버 에어로빅 및 요가·댄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각각의 프로그램은 5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곡성=양혜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날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